**자유논제1**

Q. 요조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야말로 난해한 것” 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지만 단념할 수가 없어 ‘익살’이라는 실로 간신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바라보는 요조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요조의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나’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행동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행동과 말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남을 속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논제2**

Q. 주인공의 아내는 한 상인을 믿었지만, 좋지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천진무구한 신뢰심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저는 천진무구한 신뢰심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상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한 아내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때는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 지인에게도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잘 모르는 남을 100% 믿는다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거리를 두는게 자신한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어가 필요합니다.

**선택논제1**

Q. 인간실격의 요조는 진정 인간이 아니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만들었을까요?

요조는 결국 지인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만, 정신병원에 들어간다고 인간이 아닐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조는 어렸을때부터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퍼붓는 비난이 더 두렵고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요조는 자기 자신을 광인, 폐인, 인간실격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포기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요조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선택논제2**

Q. 본문중에 요조의 노트를 받은 마담이 그것을 작가에게 넘겨주며 인간이 그렇게까지 망가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요조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나아질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순전히 요조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가 조금더 마음속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말 한마디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요조는 사람을 상대하는 순간에는 사람들을 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싶어했습니다. 실제 요조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춘채 연기하다가 자기파멸에 이르게 된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